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수월 스님(4)

철우,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리까

수월, (두팔 벌려 춤추며)여시여시 하라

철우, (춤으로 화답하며)여시여시 하겠나이다

수월(1855~1928) 스님이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실로 주석하고 있을 때의 선화이다. 당시 묘향산 금선대에서는 20대의 철우(1895~1979) 수좌가 홀로 솔잎으로 연명하며 옹몽정진을 거듭, 마침내 기나긴 고통에서 깨어났다. 철우 수좌의 견성(見性)을 한눈에 알아본 수월 스님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남자를 제정하라"고 명했다.

(佛行)수행을 당부하고 있다. 수행자가 현사에서 조실로 주석하고 있을 때의 선화이다. 당시 묘향산 금선대에서는 20대의 철우(1895~1979) 수좌가 홀로 솔잎으로 연명하며 옹몽정진을 거듭, 마침내 기나긴 고통에서 깨어났다.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현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평상심이 곧 道'라는 가르침 담아

동체대비 정신으로 중생 고통 포용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현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현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현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현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현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수월 스님이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悟後)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 동사섭(同事攝)을 행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사섭'이란 불·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몸을 나타내되, 그들과 생업과 이익, 고락(苦樂), 화복(禍福)을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로 리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보살행을 말한다. 이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 소나 말처럼 현신하는 '이류중행(異類中行)', 자비의 손을 드리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塵垂手)'와 같은 불행수행을 의미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불생불멸 '본래의 나' 자각하라

혜은사, 덕산 스님 '직지' 강의 회향기념 영흥 선사 초청 법회



영흥 스님

“정 풍명월을 드러내어 붉고 흰 꽃 난발하고, 산과 물을 펼쳐서 산호열매 예수열매 뿌리니, 그대가 흥대로 중생과 부처요, 그대가 흥대로 사바와 극락이구나. 지금 여러분은 어 떠하시니? 부양이가 부양 부양 부양 삼 천 대천세계를 삼기고, 빠꾸기가 빠꾸 빠꾸 빠꾸 삼천 대천세계를 토하는구나. 하(喝)!”

9월 5일, 충북 청원 혜은사(주지 덕산)에서는 덕산 스님이 1년4개월 여 동안 진행한 '직지(直指) 강의 회향기념 영흥 선사(전천 불교를 주석) 초청법회'가 열렸다. '한국의 <벽암록>에 해당하는 <직지심체요절>을 공부한 신도들은 서용(1912~2003) 대종사의 인가제자인 영흥 스님의 법문을 통해 선(禪)의 진수를 체험했다. 현대 고승들과의 치열한 선문답을 기록한 책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클리어마인드)를 펴내 주목받은 영흥 스님은 토속적인 계승과 법문으로 화두의 심을 촉발시켰다.

“지금 여러분은 이 도리를 아십니까? 아시면 산과 물이요, 모르시면 해와 달입니다. 필경 어찌서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콩떡 찌꺼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50여 '직지' 공부인들은 <금강경 오가해>와 <육조단경>까지 공부해 선어록에 밝은 편이지만,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만난 듯 감동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영불선을 따오던 인문을 놓여 온 혜은사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에 더욱 귀 기울이며 언하대오(言下大悟)의 각오를 다졌다. 이에 스님은 신도들의 근기에 맞춘 자상한 심지(心地) 법문으로 설법을 이어갔다. 다음은 이날 법문의 요지이다.

청원=김성우 객원기자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인가?

그동안 여러분은 주지스님에게 '직지(直指)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 '직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해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품을 곧바로 보기 위해 지금껏 알고 배웠던 것을 내던져 버리고, 여러분이 한 생각 하기 이전에 어떤 것이 나입니까?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입니까?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입니까?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인가? 그 동안 여러분은 주지스님에게 '직지(直指)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 '직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해 부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품을 곧바로 보기 위해 지금껏 알고 배웠던 것을 내던져 버리고, 여러분이 한 생각 하기 이전에 어떤 것이 나입니까?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입니까? 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입니까?

분별 없이 본 안경이 '일면불 월면불'

우리는 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생각 일으키면 '이것이 안경이로군' 하고 압니다. 안경, 이것이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입니다. 안경이라 할 때, 사랑분별이 다 떨어지고 오로지 안경이라 하는 것뿐입니다. 사심 없이 그대로 보고 들으십시오. 안경이라 하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밥 먹고 시다, 짜다 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 마아코, 혜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하기 전이나, 한 생각 일으킨 후나, 사라진 후나 똑 같습니다. 안경이다 하는 생각을 끝내버린 후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나와 너, 좋고 나쁨이 다 떨어져 나간 자리입니다. 하지만 다 버려도 본래의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 초월했지만 안경이라 한 '본래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개야!' 하고 부를 때 '예!'하고 대답하는데,

거기에 탄 생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직지'라고 합니다. 이 안경을 제대로 본다면 부처님이 든 꽃을 알아본 가섭과 같습니다.

색·공을 쓰고 누리는 것이 본래의 나

모든 것을 초월해 쓰는 주체로서 수처자(主隨處作主)의 실다운 삶을 사십시오. 색과 공을 자유로 쓰는 것은 '본래 나'입니다. 색공(色空) 역시 '본래 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가 생사(生老)를 씁니다. 본래의 나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자리입니다. '본래 나'를 모르고 극락을 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본래 나의 입장에서 극락을 만들고, 거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본래 나'를 알리는 수행의 과정에서 생활도 윤택해지고 일도 원만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성불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인데, 왜 미(迷)한 것일까요? 본래지리는 캄캄한 무명(無明) 그대로 밝은 자리가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명이 고 밝아지기 수행을 안 하면 미해지는 것입니다. 중생됨을 하면 중생이 되고, 부처됨을 하면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흥 선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는 혜은사 신도들.

그 자리가 본래 그러하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고, 본래 부처로서 부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를 초월해 양자에 걸림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해와 달, 콩떡 찌꺼기, 검고 흰 것이 하나의 중도(中道)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부처요 깨달음

이 불권이 됩니까? 이 불권이 그대로 일면불 월면불입니다. 탄 생각을 붙이지 마시고, 사심 없이 불권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고 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끄덕끄덕 하는 게 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대모가 부처이고 깨달음입니다. '본래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요 진여(眞如)요 무명인 것입니다.

스스로 '본래'가 오로지 '참나'여서 오고 가고 머물고 흥대로 중생과 부처를 누리니, 청학에 내리는 빗속에 우뚝바라가 난발하는구나.

수행 게시판

●칠일월야 화회 정진-혜은사 백련암은 10월 23~30일 성철 대선사 열반 14주기 추모 칠일야 화회법회를 갖는다. 천선, 아미타기도, 삼천배 정진 등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를 진행한다. (055)932-7300

●영가 선사 '중도가' 특강-서울을 다보시는 매주 수요일 저녁 8~10시 일제선원장 변형 스님을 초청 영가 선사의 <중도가> 특강을 갖는다. (02)475-6633

●'금강경' 독송 및 강독-서울을 역사사 금강경 독송회는 정음 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 (금강경) 2회 독송 및 강의 시간을 갖는다. (02)2662-255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사는 명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편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분을 만들고 석분이마에 영험을 받기 위해 백수정을 집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밝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인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진품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봉되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시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 108염주와 특별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제사용 백연화 강신향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추석 명절 제사부터 사용하시면 좋겠!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에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으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할 모든 이들이 신위 앞에 선 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향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글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만 뜻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불심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연이 지나도 변질 되지 않게 배드린 화사까지 처리 하였다. 자지순은 가정의 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있고 후손의 가정가정마다 만사행통과 건강장수하게 육자대명왕천연을 넣어 가정의 천년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제사때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98,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名品향로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신통종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불경에 입각해 부와 명예를 얻게 제작된 영험의 지갑!!

불경, 다라니의 근원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는 묘한말에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이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불행으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게하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각종비방의 법구와 진언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행의 고통을 해결하는 신묘(神妙)법구에는 '보병'과 '반장'이 있고 진언으로는 '육자대명왕천연'이 있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慈悲力)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역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필인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 돈을 넣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천연'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 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후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신묘지갑65,000원 여성용신묘지갑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신묘지갑
●여성용 신묘지갑
●고급케이스 선물로도 좋겠!